

尹, 총선 입장 직접 밝힌다...총리·비서실장 고심

오늘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국정 쇄신 방향 언급 이재명 “하마평 보면 대통령의 생각 상당히 우려돼” ‘쇄신 이미지’ 줄 카드 물색...법률수석 신설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법이 수반되는 각종 국정과제를 임기 내에 실현하려면 거대 야당

과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어느 수준으로 ‘협치 제스처’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한 바 있다.
당초에는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과 같은 방식을 통해 총선 입장을 밝힐 것

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다. 지난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당시에도 별도 질의응답은 없었다.
국무총리·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는 윤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되지만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최측근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

요 없는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도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비서실장이나 총리가 대통령과 적절한 긴장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온다. 이른바 ‘쓴소리’를 할 사람을 파격 발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정권에도 칼을 들이대던 이회창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기용한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총리·비서실장

인선과 관련,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날 4·10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의 인적 쇄신 추진과 관련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할 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생 살리기에 정치가 제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번 총선 민의”라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 역시 오로지 민생에만 국정 동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4월 10일 이전의 국정과 그 이후의 국정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가칭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사정 기능만 빼 채 되살려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에서 나온 방안이다. /김진수 기자



빛속 盧 묘역 참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오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 무를 꿇은 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난립’ 총선 비례 379만표 ‘사표’ 돼

38개 정당 중 34개 0석...득표율 2% 미만 32개 정당

4·10 총선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379만표는 당선인을 만들지 못한 ‘사표(死票)’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꼼수 비례 정당’이 난립하면서 여러 정당이 표가 분산된 데다 무효표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5일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 38개 중 당선인이 나온 정당은 4개다.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18명,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야권 위성정당 더불어민주당연합이 14명, 조국혁신당이 12명, 개혁신당이 2명의 비례 당선인을 배출했다.

당선인을 1명도 내지 못한 나머지 34개 정당이 얻은 표와 무효표를 합친 ‘사

표’는 전체 투표수의 12.8%인 379만 1천 674표로 집계됐다.

정당 투표 사표는 준연동형제가 도입된 후 확연히 늘었다.

정당 투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의 사표는 154만표(7.1%)였다. 이후 18대엔 162만표(9.3%), 19대엔 201만표(9.2%), 20대엔 233만표(9.5%)의 사표가 나왔다.

그런데 준연동형제가 처음 적용된 21대에선 30개 정당 중 5개만이 의석을 확보했고 사표는 427만표로 ‘폭증’했다. 4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전체 투표수 중 사표 비율도 14.7%로 상승했다.

이번 22대에서는 정당 투표 사표가 21대보다 50만표가량 줄었지만, 준연동형제 도입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

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총선에서 38개 정당 중 34개 정당은 비례 당선인을 내지 못했고, 이 중에서도 자유통합당(2.26%)과 녹색정의당(2.14%)을 제외한 32개 정당은 득표율이 2% 미만에 그쳤다.

현행 정당법은 득표율 2% 미만인 정당은 선관위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당이 언제든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 설립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며 이 법에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려 그동안 실제 정당 취소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정당 투표에서는 무효표가 전체 투표수의 4.4%인 130만 9천 931표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尹 지지율, 4.7%p 하락한 32.6%”

“총선 이틀 후 12일 28.2%...취임 후 일간 최저치 경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작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 1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p)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2.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p 떨어졌다.

작년 10월 3주차(3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정 평가는 4.1%p 오른 63.6%, ‘잘 모름’은 3.8%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4·10 총선이 끝난 지난 12일 28.2%로 2022년 5월 9일 취임 후 기준 일간 최저치(28.7%)를 경신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

(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7.7%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에서는 국민의힘이 33.6%, 더불어민주당이 37.0%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은 14.2%, 개혁신당은 5.1%, 새로운미래는 2.3%, 진보당 1.6%, 기타 정당 1.5%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4.6%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박지원 “이재명 대표 당연히 연임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 당선자(해남·완도·진도)는 15일 오전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 당대회 출마에 대해 “연임하는 게 맞다”며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당대표직 연임은 전례

가 없다’는 지적에 “그렇지 않다”며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만약 대권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당 대표를 사퇴한다. 그걸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아울러서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32%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한다”며 “그렇지만 헌정 중단을 하는, 즉 윤 대통령이 임기를 떠나는 그러한 일은 그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